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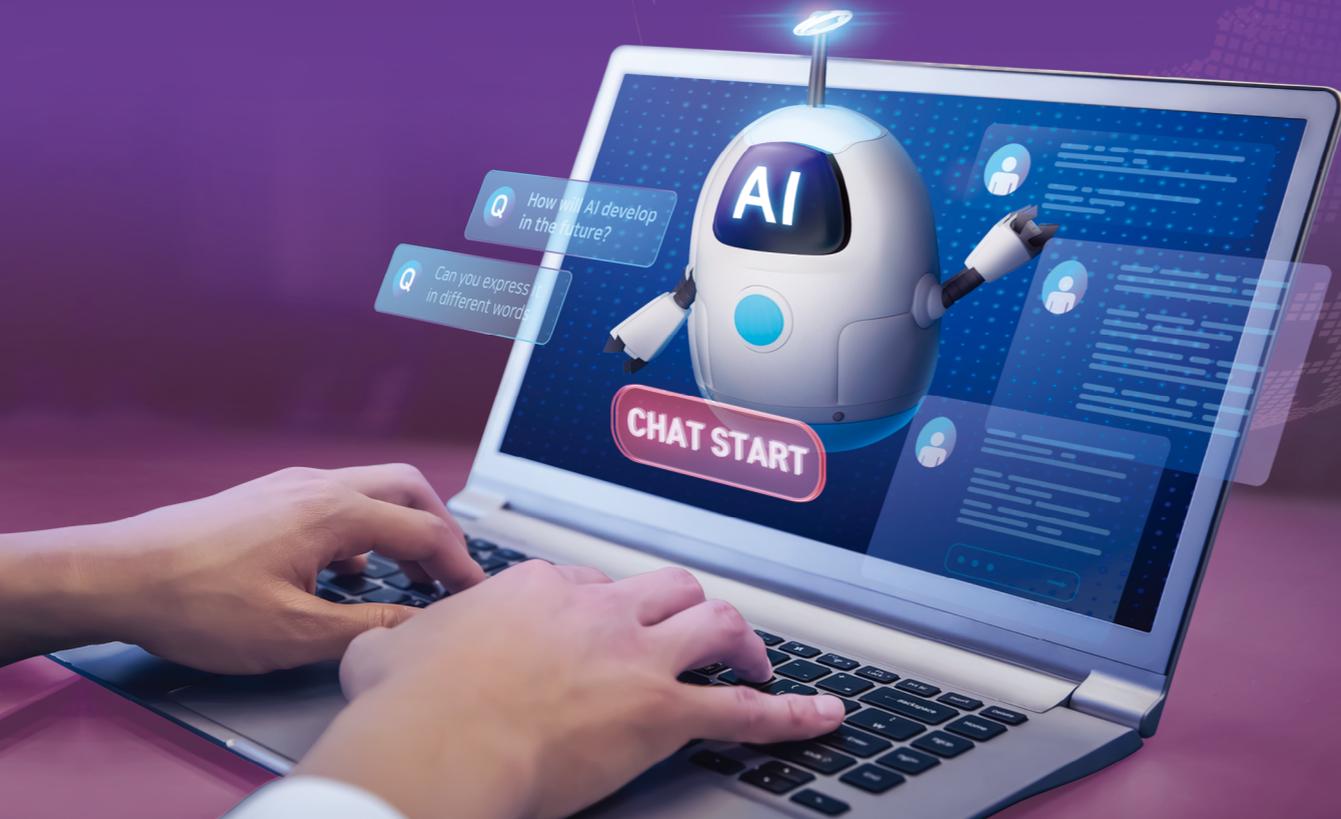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지식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딜레마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
태재연구재단 자문위원
lee.myungho@gmail.com

황칭밍

홍콩중문대학교 심천캠퍼스 국제사무연구원 신규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니어펠로
galiqm@ufl.edu



머리말

OpenAI에서 개발한 챗GPT의 이용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차적인 반응은 프롬프트(질문)에 대해 상당히 잘 정리된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 Chat(대화)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가볍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챗GPT의 다양한 능력에 놀랐다.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와 같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면 백과사전같이 정리된 문장으로 답변을 해주고, 특정 주제에 대해 에세이를 써 달라고 하면 장문의 에세이를 써주고 있다. 코딩까지 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일반 인공지능의 등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당장 학생들의 글쓰기, 에세이 숙제를 대신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들이 숙제나 공부를 하는데 챗GPT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챗GPT도 계산기와 같은 발전된 도구의 일종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챗GPT로 작성한 글을 판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학자와 전문가들의 챗GPT 사용이 늘어나면서 챗GPT를 저자로 올린 논문이 제출되자 네이처와 사이언스 등의 학술지는 챗GPT의 저자 등재를 금지했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챗GPT를 국가 차원에서 사용 금지시켰다. 현재 러시아, 중국, 이란, 이집트 등의 정부는 언론 통제의 연장에서 챗GPT 사용을 막고 있다. 언론 통제가 강한 사회주의 및 권위주의 국가들은 챗GPT를 Google Search와 같은 정보 검색 도구로 여기고 사용 금지하고 있다. 이유로는 챗GPT의 답변 내용에 정권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도 챗GPT 사용자는 계속 늘어 2달 만에 1억 명에 달했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회원들도 백만 명을 넘어섰다. 순식간에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쓸 만하다는 반응이 사무직 종사자를 비롯해 전문가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챗GPT 사용자들은 검색의 용도보다는 지식 생성, 지식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로 여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로 대표되는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권위주의 국가, 특히 중국, 베트남에서의 챗GPT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챗GPT가 검색 도구보다는 지적 생산성을 도와주는 지식 도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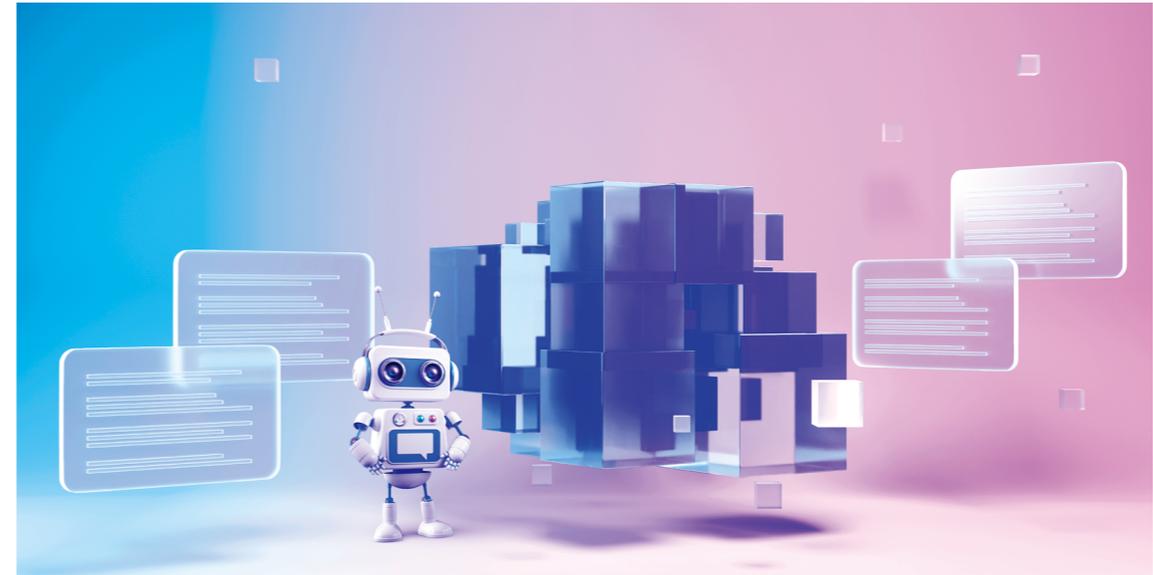
챗GPT의 한계와 비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용도로 챗GPT를 사용하면서 챗GPT가 정보 검색 도구보다 정리된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유용성이 전파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한계점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먼저 답변의 대부분은 올바른 정보이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사 작성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포기했다. 중국에서도 잘못된 기사 작성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챗GPT가 영어권 자료를 주로 학습해서 다른 나라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챗GPT에 앞서 2022년 11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Meta는 4,800만 개 학술 논문으로 훈련된 Galactica라는 생성 인공지능을 공개했는데, 이 인공지능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요청에 따라 가짜 보고서를 뱉어내는 것으로 밝혀져 2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메타의 갤럭시카는 과학을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로 학술 문헌을 요약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Wiki 기사 및 과학 코드를 작성하고, 분자와 단백질에 주석을 다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소개됐다.¹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의 게임회사 넥슨은 회사 주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임직원들에게 '챗GPT' 사용 경계령을 내렸다. 넥슨은 "챗GPT에 입력한 모든 정보는 챗GPT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챗GPT에 입력되고 학습돼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챗GPT 이용약관을 보면, 챗GPT는 성능 개선을 위해 입력된 데이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은 보안 문제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민감한 문제로 인식됐을 것으로 보인다.

현 상태에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대답(문장)을 내놓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은 물론 인간이 작성한 문서를 기반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맞는 내용을 내놓고, 그런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확률적 조합에 의해 적합하지 않은 단어가 배치돼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실제로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을 하거나 교묘하게 질문할 경우 챗GPT는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은 자신이 생산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없이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확률론적 가정을 기반으로 최선의 추측 결과를 내놓을 뿐이다. 인공지능은 자신이 내놓은 결과는 물론 문장, 단어가 실제 세계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프롬프트(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설득력 있게 들리는 답변을 대량으로 생성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두뇌가 없는 모방이며 출력이 디지털 환각이라고 미국의 한 교수는 혹평했다.²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많은 양의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의도적으로 사용,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도적으로 오도하려는 사람에게 인공지능은 소셜미디어 및 기타 채널에 넘쳐나는 대량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공장이 될 수 있다. 특정 사람들의 문체나 말투를 모방할 수도 있다. 사실에 가까운 정보나 뉴스에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끼워 넣어 가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매우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인공지능도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비도덕적으로,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비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전의 도구보다 더 강력한 만큼 혜택도 크고 위험성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용성과 유해성이 동시에 있는 도구, 기술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사용자, 시장의 선택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나쁜 놈은 이미 법을 위반하려고 하고 제재로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일한 사회적 해결책은

¹ 메타가 못 넘은 벽을 신생 회사가 넘은 것이다

² Financial Times(2023. 1. 25). Generative AI: how will the new era of machine learning affect you?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기술을 공개해 널리 퍼뜨리고 사회적 유익성을 높여 시장에서 선택되고 발전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국가(정부)에서 통제해 유해성을 막으려고 하면서 유용성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지식 생산 보조도구로서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챗GPT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 도구의 사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챗GPT는 믿을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거나 새로운 지식을 생산, 나아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자는 챗GPT에게 “새로운 지식(Knowledge, Truth)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챗GPT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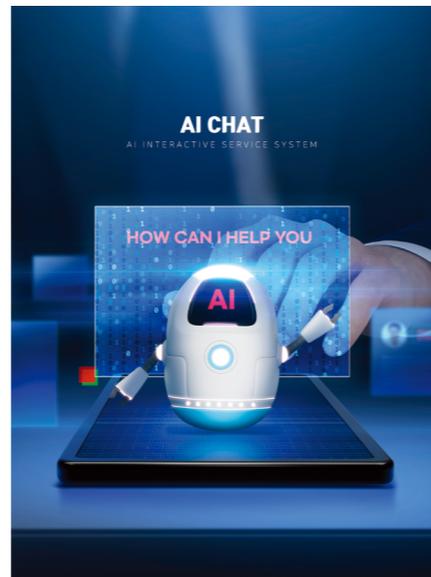
“생성형 인공 지능은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지식’이나 ‘진실’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된 정보는 검색 또는 이해 프로세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훈련된 데이터에서 학습한 패턴 및 연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생성된 정보의 품질과 정확성은 교육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다양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극적으로 생성형 AI 모델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그 가치와 정확성을 지식 또는 진실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인공지능이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는 않지만, 인간이 한정된 조건에서 사용하면 유용하다는 대답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한 회사는 챗GPT를 활용해 업무용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문서 및 매뉴얼, 최신 정보를 업로드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문서에서 찾아 요약하거나 정리해서 알려준다.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도 정보를 종합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줘 여러 문서를 열지 않고도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검색 범위는 내부와 외부 문서, 내부 문서, 외부 문서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문서를 올릴 때마다 최신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준다.³

기존의 업무용 프로그램들도 챗GPT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자료 정리 및 협업 툴인 노션(Notion)은 챗GPT를



접목해 블로그 게시물, 개요, SNS 게시물, 보도 자료, 에세이, 시, 할 일 목록, 회의 아젠다, 장단점 목록, 직무 설명, 영업 이메일, 채용 이메일 등 회사 업무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독창적인 이야기 기능은 빠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해주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도록 자극해주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에 써보도록 했는데, 결과물이 무척 훌륭해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보고서 초안 작성 등에 챗GPT가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보고 검토 중에 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외 동향 파악, 법규 사례, 부작용, 대안, 전문가 의견 등의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는 공식 문서뿐 아니라 메모, 첨부 형태로 각 부처에 쌓여 있는데 이를 데이터로 가공해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면 원하는 주제에 맞게 자동으로 보고서 초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로 변진 인공지능 열기

챗GPT 열풍은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공식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서 챗GPT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도 챗GPT를 비롯해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인 바이두에서는 ‘중국 내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이 지속적인 트렌딩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해 직접 챗GPT에 접속하는 것이 막히자 우회해 챗GPT 이용을 증대하는 유료 서비스(블랙 마켓)도 등장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촘촘히 플랫폼에서 챗GPT 검색어와 블랙 마켓 챗GPT 접속을 막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챗GPT와 경쟁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중국 최고의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⁴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은 챗GPT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기술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미 2017년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계획을 통해 중국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의 이론, 기술

³ 플레탐(2023. 2. 6). 올가나이즈, ChatGPT 결합한 업무용 AI 솔루션 론칭
⁴ Wired(2023. 3.7). China's ChatGPT Black Market Is Thriving

및 응용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인공지능 혁신센터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⁵ 챗GPT가 출시된 후 중국 정부도 챗GPT와 경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관산업을 자국에서 육성하고 싶은 열망을 드러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올 2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챗GPT를 언급하며 인공지능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도 「인공지능산업발전백서」에서 베이징시가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선도하는 지위를 유지하며 챗GPT가 사용하는 대형 언어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⁶

베트남 정부도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 베트남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응용에 관한 국가 전략’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응용 분야에서 2030년까지 아세안(ASEAN)국가 중 상위 4위 및 전 세계 상위 50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⁷ 아울러 베트남은 인공지능의 혁신, 솔루션 개발, 응용 등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가 올해 2월에 발표한 ‘2022년 정부 AI 준비지수’에서 베트남은 조사대상 181개국 중에서 55위, 아세안 국가 중에서 6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전년보다 7계단 상승한 수치다.⁸ 올해는 베트남에서 인공지능 붐(Boom)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 정부도 중국과 같이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딜레마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3월 16일 중국의 검색 대기업인 바이두는 베이징에서 챗GPT에 대항할 수 있는 어니(Ernie)라는 이름의 챗봇을 공개했다. ‘지식 통합을 통한 향상된 표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이두의 봇은

일부 사용자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다. 어니가 공상과학 소설을 요약하고 중국 관용구를 분석하는 시연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중, 바이두의 최고 경영자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데모 영상이 사전 녹화됐다”고 밝혀 홍콩에서 바이두의 주가는 10% 급락했고 대중에 실망을 안겨줬다.⁹

바이두의 챗봇 사례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확산될수록 중국과 베트남 등

권위주의 국가들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권 안정을 위한 정보통제의 일환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정부가 제한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챗GPT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잔인한 독재자 혹은 중요한 지도자”라고 답했다.¹⁰ 이와 같이 정치, 체제, 정치인, 인권, 역사 등에 관해 민감한 질문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챗봇인 ‘베이비Q(Baby Q)’와 ‘QQ샤오빙’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몽(中國夢)에 대한 질문에 ‘오류’ 답변으로 폐쇄 조치된 적이 있었다. 챗GPT가 출시한 후에 인공지능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상하이정법학원 인공지능법학원 귀김란 부교수는 인공지능을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 개발 초기부터 시스템이 폐기될 때까지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생명주기에 걸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규에 따르면 인공지능 계산방식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따라야 하며 국가의 안보, 이익과 이미지와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¹¹ 올 2월 기자회견에서 중국 과학기술부도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서도 인공지능 계산방식 디자인, 성과물 개발, 성과 응용 등 전 과정에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인공지능이 딥러닝하기 위한 방대한 자료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정부가 검열할 대상이다. 중국에서 챗GPT와 유사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자기 검열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잘못하면 정부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정부도 인공지능 내용을 어떻게 검열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 중이다. 챗GPT가 출시되자 베트남 이용자들이 ‘호 아저씨(호찌민)’와 ‘당(베트남 공산당)’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묻고 있으며, 챗GPT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법규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5 중국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년 7월
 6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 2022년베이징인공지능산업발전백서[2022年北京人工智能产业发展白皮书], 2023년2월
 7 Vietnam Government News, National Strategy On R&D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1년 3월
 8 Nhân Dân newspaper, ‘베트남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 높아진다 [越南人工智能发展水平的排名越来越高]’, 2023년 2월 23일
 9 New York Times(2023.3.16), China’s Answer to ChatGPT Gets an Artificial Debut and Disappoints

10 중앙일보, “尹도 극찬한 ‘ChatGPT에...’김정은 어때? 물었더니 달라진 대답”, 2023년 2월 8일
 11 Legal Daily [法治日报], “ChatGPT열풍 뒤에 어떤 법률리스크가 있는가? [ChatGPT火爆背后有何法律风险?]”, 2023년 2월 13일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을 통제하려면 법규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정보의 방향, 베트남의 가치관, 경제와 사회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고, 베트남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이미 뉴스 및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베트남에서 소셜 미디어가 정부에서 허락받은 언론 매체로 위장하는 행위를 '뉴스화'라고 부른다. 규정에 따르면 뉴스를 올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한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며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¹²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가 인공지능 딜레마에 대처하는 방식은 그들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인류 공통의 플랫폼과 달리 정부에 편향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식 플랫폼은 세계적 기술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축적해 온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며 발전하는 것이다. 정보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개입될 경우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 양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둘째로 권위주의 국가들은 인공지능을 내부 단속 및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권에 편향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해 체제의 우월성이나 정당성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대한 검열과 제한으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의 상업화와 혁신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유로운 환경에서 발전한 인공지능에 비해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인공지능이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 좌우할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는 단순한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이 아닌 지식 정리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챗GPT는 사람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 프로그램의 정해진 기능을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프로그램을 다뤘다. 그러나 챗GPT(GPT-4)가 접목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 코파일럿 프로그램은 자연어로 지시를 내리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 파워포인트는 아이디어를 주면 원하는 내용을 넣어 디자인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준다. '비즈니스챗'이라는 새로운 기능은 사용자가 '우리 회사에서 제품 전략을 어떻게 업데이트했는지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이메일, 채팅, 문서, 미팅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 상황을 문서로 정리해 준다. 이와 같이 챗GPT를 선두로 앞으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들이 지식 정리와 활용을 도와주고, 시간 절약은 물론 생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방대한 자료를 학습해 정리한 지식을 '블랙 박스'에 담고 있다가 원하는 질문에 맞춰 내용을 출력(형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출력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백과사전도 아니고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나 언론 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검열하기 어렵다. 중국어와 중국 자료를 기반으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더라도 정부의 규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절름발이로 만들 수 있다. 세계의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는 챗GPT에 비해 중국 자료와 중국 정부에 의해서 허용된 지식만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식의 세계에서 유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챗GPT와 같은 지능적 도구에 대한 사용 금지나 통제는 지적 활동의 제고나 생산성 향상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업무용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글로벌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챗GPT가 접목될 것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챗GPT에 기반한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뒤떨어진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것과 같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앞으로 생산성과 인간의 지적 활동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아 갈수록 뒤쳐진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과 기업, 국가는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서고자 하는 중국의 딜레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¹² Reuters, "Vietnam preparing rules to limit news posts on social media accounts - sources", 2022년9월29일; Reuters, "Vietnam to require 24-hour take-down for 'false' social media content", 2022년 11월 4일